

삼성·LG, 서로의 ‘텃밭’ 넘본다 히트펌프·TV 아트 경쟁 본격화

삼성, 광주 EHS 생산라인 내달 양산
연 10만대 규모 국내 히트펌프 공략
LG, 메트로폴리탄 명화 100점 추가
게임·영화까지 TV 아트 영역 넓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존 주력 가전을 넘어 양사가 각각 선점해온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경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은 LG가 먼저 기반을 다진 국내 가정용 히트펌프 사업을 강화하고, LG는 삼성이 앞서 카운 TV 예술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2132㎡ 규모의 EHS(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9월 말 양산을 시작하며 연간 1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히트펌프 사업을 해왔지만 국내 생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제품을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 1418가구 규모의 2차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 10만대는 판매 목표가 아니라 생산 가능한 규모”라며 “정부 지원사업에 맞춰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어온 히트펌프 사업을 국내에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국내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사업을 해왔다. 올해 제주 보급사업에서는 1차 물량 1042가구가 가운데 450가구의 설치를 맡았다. 정부 사업에 공급하는 해당 제품도 연내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히트펌프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정부도 난방 전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사업에 맞춰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시작으로 상업시설과 농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TV 예술 콘텐츠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사업을 확대해온 분야다. 삼성전자는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 ‘삼정 아트 스토어’를 전 세계 117개국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아트 바젤 등과 협력해 800명 이상 작가의 작품 5000점 이상을 제공한다. 미술 감상에 특화된 ‘더 프레임’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아트 스토어는 올해 일반 프리미엄 TV까지 확대했다. 별도의 아트 전용 TV가 아니라더라도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LG전자도 기존 아트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손잡고 반고흐와 모네, 르누아르 등의 명화 100여 점을 추가했다. 내셔널갤러리 런던과 국

립현대미술관, 사치아트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명화와 현대미술, 게임 일러스트, 영화 포스터 등을 합쳐 5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명화와 제휴 미술관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트 서비스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은 세계 주요 미술관의 명화를 중심으로 작품과 적용 TV를 확대하고 있다. LG는 미술뿐 아니라 게임과 영화 등으로 콘텐츠 종류를 넓히는 전략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히트펌프 제품의 국내 생산 체제 구축으로 난방 전기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히트펌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하 LG전자 MS사업본부 웹OS 플랫폼사업센터장은 “고객이 LG TV를 디지털 액자로 활용해 미술과 게임 등 좋아하는 콘텐츠를 감상하고, 나만의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트 콘텐츠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LG, 세계 첫 ‘네이티브 1000Hz’

FHD 화질 유지한 초고주사율 구현
AI 화질·사운드로 게이밍 몰입감 강화
149만원 울트라기어로 프리미엄 공략

LG전자가 초고주사율과 고해상도를 동시에 구현한 게이밍 모니터를 앞세워 프리미엄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초고주사율 제품에서 감수해야 했던 해상도 저하 없이 FHD 화질에서 1000Hz 주사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FHD(1920×1080) 해상도에서 1000Hz 초고주사율을 기본 지원하는 네이티브(Native) 1000Hz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 LG 울트라기어 신제품(모델명 25G590B)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사율은 1초에 화면이 갱신되는 횟수로, 1000Hz는 1초에 최대 1000장의 화면을 표시한다는 의미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더욱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신제품은 빠른 화면 전환과 선명한 화질을 동시에 원하는 게이머를 겨냥했다. 기존 듀얼 모드 1000Hz 모니터는 최대 주사율을 사용하면 화면 크기나 해상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25G590B는 FHD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100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로 1,000Hz 초고주사율과 FHD 해상도를 동시에 구현한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모델명: 25G590B). /LG전자

특히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 적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캐릭터와 배경, 사물의 세부 요소까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정밀한 조준과 빠른 타깃 인식이 필요한 게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기능도 탑재했다. ‘AI 맞춤 화질’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인식해 화질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AI 사운드’는 헤드폰 등을 사용할 때 발소리 방향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게이머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공간 활용성도 개선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스탠드 베이스 크기를 기존 모델(25G550B) 대비 최대 49% 줄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자선하증권으로 무역 디지털 전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종이 중심의 무역 서류를 전자화해 물류·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플로우, ZIM, 하나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태웅로직스와 ‘전자선하증권(e-B/L)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e-B/L 발행·거래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협력한다.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과 인도를 증명하는 무역 서류로, 종이 문서는 전달에 통상 5~10일이 걸린다. e-B/L을 적용하면 이를 수시간 이내로 줄이고 국제 특송·문서 처리 비용도 최대 80%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부산에서 미국 찰스턴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거래에 ZIM의 e-B/L 플랫폼을 적용해 발행부터 화물 인도까지 전 과정을 실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범위를 수출입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포스코플로우와 ZIM, KTNET, 하나은행, 태웅로직스가 각각 운송·플랫폼·금융·물류 분야를 지원한다. /유혜은 기자 chakchak@

자율주행 승부처, 데이터·AI로 이동

현대차, 차량데이터 선별 AI학습
엔비디아, 옴니버스·코스모스 AI훈련
퀄컴, ADAS·콕핏 통합 ‘플렉스 SoC’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단순한 주행 성능을 넘어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 학습, 가상환경 검증, 차량 적용까지 개발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실제 차량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지속 개선하는 가운데 반도체·플랫폼 업체들은 시뮬레이션과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기술을 앞세워 자율주행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 E 2026)’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플라이월’ 전략을 제시했다. 차량 데이터를 선별해 모델을 학습·검증한 뒤 다시 차량에 배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경민 현대차 자율주행개발센터 상무는 “차량의 경쟁력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와 AI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연간 700만대 이상의 차량을 190개 이상 지역에 판매하는 규모를 데이터 확보의 강점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자율주행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전체의 1% 이하라며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큐레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AI 학습·검증 방식을 소개했다. 실제 도로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구현해 AI 모델을 반복 학습·검증하는 방식이다.

퀄컴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디지털 콕핏 등을 하나의 칩에서 지원하는 ‘플렉스(Flex) SoC’를 소개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여러 기능을 구현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퀄컴에 따르면 현재 5억대가 넘는 차량에 자사 제품이 적용됐으며 디지털 콕핏 제품은 9000만대 이상 상용화됐다. 차량 내 AI는 온디바이스 방식과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강조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삼성, USB4 포터블 SSD ‘P9·P7’ 공개

P9, 세계 첫 8TB·초당 4000MB 지원
P7, 스마트폰·게임기 등 호환성 강화

삼성전자가 차세대 USB4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포터블 SSD 신제품을 선보인다. 초고해상도 영상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성능·고용량 제품으로 포터블 스토리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포터블 SSD ‘P9’와 ‘P7’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제품은 초고해상도 영상과 AI 콘텐츠, 대용량 게임 등 데이터 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을 겨냥했다. 전문가용 플래그십 모델인 P9과 다양한 기기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P7 등 2종으로 구성됐다.

P9은 USB4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최대 연속 읽기 속도 초당 4000MB, 연속 쓰기 속도 초당 3800MB를 지원한다. 이전

세대 T시리즈 대비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약 2배 빨라졌다. T9 4TB 제품은 USB 3.2 Gen 2x2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최대 연속 읽기·쓰기 속도 각각 초당 2000MB를 지원한다.

특히 P9은 세계 최초로 초당 4000MB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8TB USB4 포터블 SSD로 구현됐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2026 혁신상’도 수상했다.

P9은 높은 연속 쓰기 성능을 바탕으로 전문 촬영 현장에서 12K 다이렉트 레코딩(Direct Recording)을 지원한다. 대용량 RAW 사진과 초고해상도 영상 등을 끊김 없이 저장할 수 있어 전문 크리에이터의 촬영·편집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P7 역시 USB4 기술을 적용했다. 데스크톱과 노트북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콘솔,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된다. 2m 높이 낙하 충격 테스트와 충격·진동 내구성 검증도 거쳐 아동이 잦은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차현정 기자

LG화학, AI 반도체 소재로 대만 공략

세미콘 타이완 2026서 첨단소재 공개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능을 뒷받침하는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 2026(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과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과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소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다. 반도체 제조사와 후공정 전문기업(OSAT), 기판·

패키징 기업 등이 참가해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을 진행한다.

LG화학은 난강전시센터 2관 4층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를 소개한다. 전시 공간은 첨단 패키징 소재를 다루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존(Advanced Package Zone)’과 전력반도체 소재를 소개하는 ‘파워 패키지 존(Power Package Zone)’으로 구성한다. 어드밴스드 패키지 존에서는 동박적층판(CCL)과 글래스 코어 솔루션, 발드업 필름, 필름형 솔더레지스트(DFSR)를 전시한다. 감광성 절연 소재(PID)와 다이 부착 필름(DAF), 본딩·디본딩 솔루션, 미세공정용 박리액 등 첨단 패키징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도 함께 소개한다. /원관희 기자 wkh@